

트라우마 가족 역동에 대한 그리스도 닦음의 실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중심으로

김 규 보*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트라우마 가족 역동을 분석하고 그리스도 닦음의 실천이 트라우마 가족 역동을 변화시키는 성경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는 것이다. 가족은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지지와 회복의 발판이 되기도 하는 반면, 트라우마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학대와 방임, 가족 역기능은 가족 트라우마의 원인이 되고, 가족 트라우마는 세대 간 전이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은폐, 인과응보적 사고, 영적 승리주의 같은 부적절한 가족의 대처는 이차 트라우마를 낳을 위험이 있다. 이에 그리스도의 삼중직 교리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 질서를 형성하는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신지자적 가족 질서는 말씀 중심의 환경을 형성함으로써 트라우마 양육 환경을 거룩 축진 환경으로 변화시킨다. 제사장적 가족 질서는 죄 사함과 간구함의 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트라우마 문제에 직면하고 세대 간 전이 되는 과정을 끊어내게 한다. 왕적 가족 질서는 그리스도께 가정의 왕권을 이양함으로써 트라우마 지배적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비전에 이끌리는 가족 공동체를 세워간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곧 선지자, 제사장, 왕적 가족 질서를 형성함이 트라우마 저항적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 지향적인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그리스도 닦음의 가족 체계적 실천임을 논한다.

주제어: 트라우마, 가족 체계,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 닦음, 기독교 상담

• 논문 투고일: 2020년 9월 20일

• 논문 수정일: 2020년 10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11월 6일

*충신대학교 상담대학원 조교수

I. 여는 글

가족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경험하는 최초의 인간관계이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 가족을 이루셨다(창1:17; 창2:24).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함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로서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인 하와를 허락하셨고, 둘은 별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사명에 협력하는 한 몸 공동체가 되었다(창 1:28; 2:18-24). 즉, 성경적 관점에서 가족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성품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며 자녀를 낳고, 그들을 거룩하게 양육함으로써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거룩한 기관이다. 이에 John Piper(2013: 53)는 가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특별히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 되어 궁극적으로 신자들의 참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게 한다고 가르친다. 또한 John Frame(2015: 785)은 가족은 “통치와 구원 모두에 있어서 하나님의 수단”이며, 사람들은 “가족으로서 땅을 채우고,”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봉사”한다고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James Smith(2016: 125)는 가족을 “작은 하나님 나라(little kingdoms)”라 지칭하며 가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의 가족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작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이 그렇지 않다. 인류의 타락 이후 끔찍한 트라우마 사건들이 가족 관계 안에 침투했다. 인류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후 서로를 비난하며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왜곡된 힘의 투쟁을

시작했다(창3:12-16).¹⁾ 그들의 마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 죄책으로 물들어 있었다(창3: 3-10).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도망쳤다(창4:8).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창 22:8-10), 다말은 배다른 형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삼하13:10-15). 욥은 하루아침에 가족과 재산과 건강을 모두 잃었고, 스스로 삶을 저주하기까지 이르렀다(욥1:13-19; 2:7-9; 3:1-26). 성경은 타락 이후 수많은 트라우마 사건이 가족 안에 존재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아는 자손들에게 있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의 질서가 세워짐을 증거한다. 이 일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현실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가족은 아직 타락의 영향 아래 고통 받으나 이미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영향 아래 회복과 변화를 이루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이루어 간다.

그 과정 가운데 트라우마는 죄와 고통으로 얽힌 왜곡된 질서를 야기한다. 트라우마는 결코 가족 전체와 분리 될 수 없다. 가족은 구성원들이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 가는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이다(Bowen, 1994; Satir, 2006; Whitaker & Bumberry, 2005). 만약 가족 역동이 건강하고 바르다면, 가족은 한 구성원의 트라우마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직면하여 문제를 극복하고자 협력할 것이다. 이런 경우 가족은 트라우마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지와 회복, 성장의 발판이 된다. 그러나 만

1) Kostenberger & Jones(2020: 34)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창3:16)라는 말씀을 타락 이후 자기중심적 죄에서 비롯된 조종과 통제의 욕망으로 깨어진 남편과 아내의 창조질서로 이해한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끝없는 갈등이 사랑의 조화를 대신할 것이다. 여자는 남편을 통제하려 하고 남편은 그에 맞서 권위를 내세운다. 남편이 권위를 주장하는 방식은 대개 불경하여, 수동적으로 행동을 강요할 수도 있고 능동적으로 아내를 지배할 수도 있다.”

약 가족 역동이 건강하지 않고 바르지 않다면, 안정감과 평안함, 성장의 근원이 되어야 할 가족 자체가 오히려 트라우마를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내담자의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치유함에 있어서 가족 역동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현대 사회의 트라우마 가족 역동을 분석하고 그리스도 닮음의 가족체계적 실천이 트라우마 가족 역동을 변화시키는 성경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곧 선지자, 제사장, 왕적 가족 질서를 형성함이 트라우마 가족 역동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지향적인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가 될 수 있음을 논한다.

II. 펴는 글

1. 트라우마와 가족

트라우마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혹은 영적 자아가 실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강한 충격을 입을 때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정신적 외상으로, 기존의 가치 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일상의 적응, 정서 및 성격 문제, 혹은 다양한 신체화 증상을 수반하는 전인적 수준의 내적 상처이다(김규보, 2017). 이 개념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에 수록된 트라우마 사건의 정의는 물론 진단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일상의 사건들을 포함하는 정의이다. DSM-5(2015: 290-91)에 의하면, 트라우마 사건은 죽음에 대한 위협 또는 심각한 상처를 직접 경험하거나 가까운 타인에게 일어난 것을 생생하게 목격함으로써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적 안녕이 위

협당하는 사건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실제로 PTSD의 증상을 나타내는 내담자들 중에 죽음이나 심각한 상처, 혹은 신체적 안녕에 대한 위협이 없는 경우도 많다. 부모의 별거, 부부 갈등, 가족 구성원의 중독 및 질병, 학업 및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 직업 상실, 경제적 어려움, 관계 갈등, 외도, 유산, 낙태, 가정폭력의 목격 등 다양한 정황 속에서 내담자들은 PTSD의 증상을 나타낸다(Bodkin et al., 2007; Gold et al., 2005; Kubany et al., 2000; Robinson & Larson, 2010).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트라우마를 이해할 때 DSM의 진단 범주를 넘어 일상의 다양한 사건들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김보라 외, 2018; 김지은, 이민규, 2015; 이동훈 외 2018; Herman, 2012; Kolk, 2016).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가정은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가족 역동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1) 트라우마 촉진 환경: 학대, 방임, 가족 역기능

건강하지 못한 가족 역동은 구성원들에게 트라우마를 촉진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 가족 역동은 항상성이 있다. 가족 항상성(homeostasis)이란 지금까지 하던 태도와 방식대로 가족 관계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는데, 이는 구성원들에게 익숙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 변화에 저항하는 힘이 되어 가족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방해하기도 한다(Nichols & Schwartz, 2004). 문제는 가족 항상성이 항상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가족 역동 가운데 트라우마 사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많은 가정은 왜곡된 관계 질서를 겨안은 채로 병리적인 항상성을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부정적인 항상성이 가족 시스템 내에 고착되어 버리면 익숙한 가족의 일상 자체가 트라우마 촉진 환경이 된다.

학대는 가장 직접적인 트라우마 촉진 환경이다. 가정 내에서 학대는

적극적 학대와 소극적 학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적극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종교적 학대 등으로 세분될 수 있는데, 그 형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DSM-5, 2015: 790-96; Swagman, 2002: 37-52). 신체적 학대는 구타 및 감금행위, 물건을 파괴하거나 눈빛, 행동, 몸짓으로 위협함, 애완동물을 폭행함, 흥기로 위협함, 상대방이 만나는 사람, 행동, 하는 일, 가는 장소 등을 감시하고 통제함, 가족 및 사회관계를 차단하여 고립시킴, 상대방을 종으로 다루거나, 힘으로 굴복시키는 행위, 자기감정 혹은 스트레스 해소성 훈육 등으로 나타난다. 정서적 학대는 상대방을 모욕하고 창피를 주거나 폭언을 하는 행위, 학대 행위에 대해 부인하거나 축소 혹은 학대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책임 전가, 상대방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며 무시하는 행위,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고립시키는 정서적 단절 행위, 불법 행위를 강요하거나, 아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해 죄책감을 들게 하고, 자녀나 친구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헐박하거나 조종하는 행위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폭력이다. 성적 학대는 성추행, 성폭행,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희롱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경제적 학대는 직장을 구하고 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금품을 빼앗고, 경제권을 주지 않는 행위, 경제권으로 상대방을 지배하는 행위 등이다. 종교적 학대는 종교적 구원이나 교리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헐박하고, 폭력, 금품갈취, 성적 학대 등을 정당화하는 행위 등이다.

소극적 학대는 방임의 형태로 나타난다. 방임의 대상은 주로 아동이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서 양육하는 행위, 아동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행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을 호적에 올리지 않는 행위, 극단적인 경우로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

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 2호). 그러나 실제로 방임의 대상은 아동 뿐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원 누구나 될 수 있다. 장애인 질병 등을 겪고 있는 가족원, 경제 및 노동력 상실, 노화 등으로 타인의 돌봄 없이 살아가기 어려운 대상들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것은 모두 방임의 범주에 속한다. 방임 행위에 대해 일부 가해자들은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합리화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방임은 피해자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고 다양한 트라우마 증상을 야기한다는 점, 더 나아가 생존에도 위협을 준다는 점에서 학대 행위로 이해된다(Bradshaw, 2006; Herman, 2015; Kolk, 2016).

이렇게 가정 안에서 행사되는 적극적 혹은 소극적 학대는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삶의 문제를 야기한다. 아동기 학대 경험은 건강한 정서 및 관계 발달, 성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 이후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 문제, 성격 장애, 자해 및 자살과 같은 자기 파괴적 행동, 해리, 대인관계 문제 등의 정신병리와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Allen & Lauterbach, 2007; Courtois, 2008; Famularo, 1992; Hovens, 2010). 이들은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쉽게 불안해하며 스트레스 대처 능력 및 자아 존중감의 저하를 보인다(안현의, 박철옥, 주혜선, 2012; 최광현, 2009). 기억의 파편화, 감정인지불능증, 부정적인 자아상, 애착 장애, 타인에 대한 신뢰 상실 및 정서적 단절 등의 모습도 나타낸다(Herman, 2015; Kim, 2016; Kolk, 2016; Seigel, 1999). 더 나아가 학대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의 경우 자기 통제력이 일반 집단에 비해 떨어지고 인내심 결핍과 충동적 성격을 보이며 일탈, 비행 및 범죄에 더 취약해지기도 한다(Cerezo, 1997; Kim et al., 2009). 학대 경험이 있는 여자 아이들은 이후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 또 다른 폭행을 당할 가능성, 곧 재피해자화(revictimization)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Briere & Scott, 2020). 또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남자아이들은 폭력적

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위험이 크고 성인이 된 후 데이트 파트너 혹은 배우자를 폭행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Carlson, 1990; Edleson, 1999; Wolak & Finkelhor, 1998). 특히 학대나 방임이 가족처럼 유의미한 타인에 의해 고의적, 인위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 영향력은 더욱 파괴적이라고 한다(유재학, 서민재, 박지선, 2013). 이런 상관관계 연구들은 가족 시스템 안의 학대와 방임이 피해자들에게 한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많은 경우 트라우마의 문제를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치부하고, 학대나 왜곡된 가족 질서로부터 기인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특히 오늘날 정신의학적 접근은 트라우마의 피해자들을 진단할 때 증상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가족 트라우마의 피해자들에게도 가족 역동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없이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성격장애, 공황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반항장애 등 다양한 임상병리적 명칭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약물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다(Kolk, 2016).

물론 약물치료가 신경계의 조절을 통해 병리적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약물치료는 증상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소들, 곧 트라우마 가족 환경이나 그로 인한 왜곡된 신념체계와 정서 도식의 탐색, 가족 체계에 변화를 주는 일 등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약물치료는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다양한 신경생물학적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한계도 있다. 예를 들면, 트라우마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벤조디아제핀계의 신경안정제들은 평안한 기분을 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이 약물군은 중독성이 높아 기억의 처리에도 방해가 되고, 장기간 복용하다가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불안감을 높이고 금단증상이 나타나 오히려 트라우마의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한다(Kolk, 2016: 355). 또한 향정신성 약물은 도파민과 관련된 보상회

로를 차단하는 과정을 통해 과도한 각성이나 격한 분노,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이는 정서적 동요에 의한 문제를 줄이는 동시에 기쁨이나 행복 같은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기능도 저하시켜 삶의 만족감과 생동감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Kolk, 2016: 356).

Bessel van der Kolk(2016: 242)는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정신의학 센터들이 가정폭력의 피해 아동들에게 과량의 항정신성 약물을 투여하고 있고, 그 결과 그들에게서 기쁨을 느끼는 능력, 정서적으로나 지적으로 성장할 기회, 건강한 사회성을 개발하는 능력까지 빼앗아 버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Kolk(2016: 253)는 가정 안에서의 학대를 “숨겨진 유행병”이라고까지 묘사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학대, 배신, 방치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는 수 없이 우울증, 공황장애, 양극성 질환, 경계성 성격 장애와 같은 진단을 내려야 한다면, 환자가 해결하려는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 양육자의 학대와 방치가 낳은 결과는 허리케인이나 자동차 사고가 남긴 영향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고 복합적이다....20년 동안 네 차례가 개정이 진행된 오늘날까지 DSM과 DSM을 토대로 마련된 진단 체계 어디에도 아동 학대와 방치 희생자가 들어설 곳은 없다 (Kolk, 2016: 233-34).

이런 현실에 대해 Kolk(2016: 257)는 “발달 트라우마 장애(developmental trauma disorder)”라는 진단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학대나 방임 등 개인의 발달 과정 가운데 반복적인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이들에 대한 임상적 이해와 치료를 정교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Judith Herman(2015: 115-32)도 하나의 큰 트라우마 사건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만성적인 트라우마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복합 트라우마(Complex PTSD)”라는 진단명을 제안한다. 아직

이 개념들이 DSM에 공식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가족 역동이 트라우마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경험하는 현장의 많은 실천자들은 이 개념들을 적용하고 있다(김보라 외, 2018; 이동훈 외 2018; Charf, 2020; Gold et al., 2005; Kim, 2016; Robinson & Larson, 2010).

한편, 만성적인 가족 역기능도 트라우마를 촉진하는 주요한 환경 중 하나이다. 빈번한 부부 갈등, 외도나 별거, 이혼 위기의 가정, 만성적인 장애나 질병, 중독 문제가 있는 가정, 갑작스러운 사고 혹은 상실을 경험한 가정,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어려운 가정 등의 경우, 가족원들은 역기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역기능적 가족은 병리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보이고 위계질서가 깨어져 있으며 왜곡된 삼각관계, 가족원 사이의 모호한 경계선, 엄격하고 경직된 가족규칙, 가족 문제에 대한 부인,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 체계 등의 특징을 보인다(설은주, 1997; Bradshaw, 2006). 이런 환경은 극단적인 특정 사건이 아니라 부모의 무지나 미해결 과제, 선입견, 부족함 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역기능적 가정 안에서 어떤 구성원들은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병리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그런 가족원을 '가족 희생양'이라 한다. 가족 희생양이 된 구성원은 엄마 혹은 아빠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리 배우자 혹은 작은 부모, 부모의 갈등과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마스코트, 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명예를 높여주어야 하는 영웅, 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감추고 가시적인 원인으로 비난받은 문제아, 혹은 관계 갈등 가운데 부정적인 심리적, 정서적 감정을 해소하는 정서적 쓰레기통 등의 역할을 감당한다(최광현, 2011; Bradshaw, 2006; Pillari, 2008). 이 역할들은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가족 체계의 필요에 의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부부 문제를 자녀의 학업이나 태도, 이성교제 혹은 사회성 등을 문제 삼아 회피하는 경우, 지나친 부부 싸움으로 가정 내 불안과 긴장이 가득한 가운데 자녀가 비행 혹은 자기

파괴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폭력적인 아버지에 대항하여 자녀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싸우고 방어하는 경우,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성취하기 위해 자녀가 자신의 욕구와 소망은 억누른 채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매진하는 경우, 자녀의 장애 혹은 만성적 질병에 대한 치료비용과 파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기학대적으로 일을 하거나 모든 가정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경우, 혹은 역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술이나 관계 등 중독에 빠지는 경우, 자녀가 마치 상담사가 되어서 부모 갈등에 개입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 희생양은 구체적인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족의 긴장을 다른 방향으로 환기시키고 문제의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가족원의 결속과 향상성을 유지하여 가족의 붕괴를 막는 기능을 한다. 이는 한 사람의 희생으로 가족의 혼란과 갈등을 일시적으로 무마하여 가족의 안정을 표면적으로 유지하는 병리적인 가족역동이다.

가족희생양이 감당해야 할 대가는 트라우마적이다. 최광현(2012: 139-42)의 연구에 의하면, ‘문제아’의 역할을 하는 구성원은 문제 행동을 통해 가족의 고통과 분노를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가족의 결속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족 갈등과 긴장이 극도로 민감해지고, 이는 불안감을 상승시켜 지속적으로 문제 행동을 반복하게 한다. 따라서 문제아는 가족 관계 안에서 항상 비난 받는 존재가 되고, 그 결과 가족의 고통과 불행은 모두 자기 탓이라 믿는 왜곡된 신념을 갖고 만성적인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으로 괴로워하게 된다. 이는 또 다른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심리적 역동이 된다. 한편, ‘영웅’이 된 희생양은 부모나 형제의 못 이룬 꿈, 욕구를 대신 위임받아 성취해야 하고, ‘해결사’가 된 희생양은 가족의 현실적인 필요와 요구를 대신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기 인생이 타인에 의해 통제받는 것 같은 억압감을 느끼고 자기의 삶이 자기 것 같지 않은 공허함에 빠지곤 한다. 그 결과 우울과 무기력,

혹은 만성적인 염증 질환 등의 신체화 증상도 보인다. 만약 그 굴레를 벗어버린 경우, 가족을 배신하고 자기 사명으로부터 도망쳤다는 ‘탈출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한 평생 시달리기도 한다.

Kolk(2016: 217-18)에 의하면, 트라우마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태도와 행동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감정과 태도에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등 다양한 생존 방법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 심지어 그들은 외부에서 학대나 폭행을 당했을 때도 그것을 부모가 알게 되면, 가족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가족의 안녕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 사건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숨기고 관련된 생각과 감정들을 억압한다고 한다. 그 결과 사건은 은폐되고, 아이들은 왜곡된 관계 역동 가운데 건강한 자아 형성에 실패한다.

이렇게 가족 희생양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다 보면, 자기희생에 대해 보상 받으려는 현상이 나타난다. Boszormenyi-Nagy & Krasner (2014: 109)는 이를 “파괴적 권리(destructive entitlement)”라고 부른다. 파괴적 권리란 어떤 관계나 상황 속에서 희생양이 되었을 경우, 피해자로서 부당하게 상처 받았기 때문에 ‘Give & Take’로서 자신의 공격적인 행동이나 파괴적 태도를 합리화하는 신념이다. 이 왜곡된 권리는 가족 규칙이나 위계 등을 통해 은밀하게 주장되기 때문에 가족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묵인하곤 한다. 그 결과 가족원들은 서로 상처주기와 파괴적 권리 주장하기의 악순환을 반복하며 지속적인 역기능적 가족 질서를 양산한다.

결과적으로 가족희생양은 가족의 붕괴를 막으려는 긍정적인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적 가족 역동 가운데 지속적으로 고통 받는다. 이런 가족 환경 속에서 트라우마적 신념과 정서, 태도는 구성원들의 만성

적 성격으로 고착된다. 그들은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인지하고,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며, 스스로를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여긴다(Charf, 2020). 이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불안감과 분노, 수치심, 죄책감, 우울증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Charf, 2020). 또한 가족 희생양은 그들을 향한 비난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융합이 만들어내는 병리적 삼각관계 가운데 가족 안에서 소외감과 외로움, 공허함에 빠지곤 한다(Bradshaw, 2006). 가장 강한 정서적 연대가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그들은 스스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떤 집단에서도 수용 받지 못한다는 왜곡된 신념을 갖고, 자아 존중감의 현저한 저하를 보이기도 한다(최광현, 2012). 이는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쳐 일상 가운데 지나친 긴장감과 과잉 경계 태도를 보이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에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Schore, 1994). 이런 고통 가운데 그들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은 취약해지고,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음주, 도박, 게임, 쇼핑, 충동적인 성관계, 강박적 운동, 폭식, 자해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부정적 정서에 파괴적으로 반응한다(김규보, 2020; 도기숙, 2011; Allen, 2010). 이런 반응들은 부정적 심리 역동으로부터의 일시적 회피나 내적 고통에 대한 무감각을 야기하는 병리적 선택으로, 이는 또 다시 부정적 감정과 신념을 낳고, 또 다른 병리적 반응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Kolk: 455-56). 그리고 그 고리는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

2) 세대 간 트라우마 전이

가족 역동 가운데 경험되는 트라우마는 세대 간 전이되는 경향이 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 가족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인이 된 후에 과거의 경험을 재현하곤 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 최광현(2012)은 왜곡된 가족 역동이 주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만성화

되는 경우, 기쁨이나 행복감은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키는 반면, 고통스럽고 불행한 감정은 역설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한다. 고통과 긴장이 본인에게 익숙한 일상이었기 때문이다. 즉, 트라우마 가족 환경 가운데 성장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는 불행한 가족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왜곡되고 병리적인 가족 역동을 반복하면서 고통과 긴장, 불안 상태를 일상적인 가족 환경으로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Bradshaw(2006: 48-50)는 이런 병리적 역동을 “사랑의 환상(fantasy bond)”이라는 방어기제로 설명한다. ‘사랑의 환상’은 Robert W. Firestone(1985)이 언급한 용어로 양육자로부터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양육자와 자신이 특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 내는 인간의 정신역동을 의미한다. 이는 방임과 학대의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고 부모는 이상화함으로써 자신과 부모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심리적 보호기제이다. 이에 대해 Bradshaw(2006: 50)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이 정서적으로 박탈감을 느낄수록 연결의 환상은 강해지게 마련이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사람은 버림을 받을수록 자신의 가족과 부모를 이상화하며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를 이상화하게 되면 그들의 양육방식 또한 이상화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환상 가운데 학대 부모의 이상화가 이루어지면, 동일한 패턴의 관계 역동이 다음 세대에도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역동은 사실 이성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성적 사고라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우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폭력이나 폭언, 방임 등의 모습을 결코 보이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의식적 사고 이면에 보다 큰 비의식적 신념이 이 역동을 지지한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 이상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에게 배웠던 “이상(理想)적인” 그

러나 실제로는 “이상(異常)한” 삶의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대했던 부모의 사랑을 전제함으로써 학대도 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병리적 신념이 자리 잡는 것이다. 사랑하니까 때려도 폭언을 해도 괜찮다는 왜곡된 신념이다.

이런 병리적 역동이 만들어지기 위해 반드시 부모의 이상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부모를 이상화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행위가 자기를 두렵게 하고 통제하는데 효과적이었다면,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녀나 배우자에게 그 행위를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 자기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순간, 곧 부모가 위협하고 폭행했던 순간 두려움에 부모의 통제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했다면, 자녀 혹은 배우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순간을 재현함으로써 가족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내담자의 어린 시절 아버지는 배우자와의 갈등 상황 중에 칼로 위협을 가했다. 어린 내담자는 이 순간 어머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 떨었고, 극심한 공포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구석에 숨어서 부모의 다툼을 울며 바라보고만 있었다. 결혼하면서 내담자는 결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닮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아내와 다툼 중에 갈등이 고조되자 머리 속에 떠오른 이미지는 아버지가 어머니 앞에서 칼을 들고 있던 장면이었다. 그 순간 소리치는 아내를 제압하고 통제해야겠다는 생각에 내담자는 결국 아내 앞에서 칼을 들고 위협했다. 그렇게 하면 아내가 어린 시절 자기처럼 두려워 떨며 자기 말을 들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을 한 뒤, 내담자는 아버지와 동일한 모습의 자신을 보며 절망했다. 이 과정은 합리적인 사고 과정이 아니다. 의식 이전의 트라우마 정서 기억이 마음을 지배하고 자기에게 익숙한 관계 패턴을 비의식적으로 반복한 것이다.

이런 트라우마 패턴의 세대 간 대물림 현상은 외상적 연합(traumatic

bonding)과 동일시(identification)로도 설명 가능하다. 연합은 한 부모 혹은 부모 모두에게 형성되는 강력한 라포(rapport)이고, 동일시는 그들과 자기를 동화시키는 작업이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와 연합하고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 규칙과 문화를 습득한다. 이 과정에서 학대를 받은 아이는 부모와 외상적 연합을 이루어 학대가 정상적인 가족 역동이라고 믿게 되고, 힘이 세고 강한 부모를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학대 받는 약한 자기를 벗어나 강한 자기를 형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외상적 연합과 동일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학대 부모의 감정과 신념, 행동 양식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결국, 자녀 세대에게 똑같은 모습을 재현한다 (Bradshaw, 2006: 92-93).

한편,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에서 일어난 트라우마 사건을 마치 직접 경험한 것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홀로코스트(the Holocaust) 피해자 자녀들 중 일부는 그들의 부모가 경험했던 전쟁, 감금, 고문 등의 트라우마 사건을 마치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반응했다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Jazen, 2013; Juni, 2016; Schwartz, Dohrenwend, & Levav, 1994; Weiss & Weiss, 2000). 홀로코스트가 그들이 태어나기 이전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건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건에 기초하여 그들의 세계관을 변화시켰다 (Barocas & Barocas, 1979; Jazen, 2013). 그들은 세상을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고 도덕적 권위가 결여된 시공간, 언어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외상 자체로 이해하는 부모의 세계관을 그대로 내면화 하는 모습을 보였다(Jazen, 2013). 더 나아가 그들은 파편화된 기억과 그에 의존한 일관성 없는 서술 등 부모의 트라우마성 기억을 마치 자기의 기억처럼 묘사하기도 했다(Hirsh, 2002).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은 일, 곧 고문당하거나 가스실에 갇히는 일, 신체의 일부가 절단 당하는 등의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Kogan, 1995). 또한 어떤 이들은 부모의 트라우마에

서 기인한 죄책감과 우울감, 불안, 불신, 두려움, 좌절감 등을 나타냈고, 그로 인해 증독, 폭력, 비행 등 다양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Epstein, 1979; Juni, 2016).

Vamik Volkan(1997: 43-44)에 의하면, 세대 간 트라우마 전이는 부모가 자신의 트라우마 자아를 자녀의 인격으로 외현화하고 자녀는 그것을 내면화 할 때 발생한다고 한다. 부모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자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녀는 부모의 트라우마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감정과 가치, 소망과 기대를 자기 것으로 삼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우 자녀들은 부모가 지녔던 트라우마성 심리 요소들을 내재화하여 부모의 감정을 대신 담아두는 저장고가 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감정을 대신 환기까지 해주어야 하는 대리인이 된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지닌 무력감, 수치심, 불안 등의 트라우마 정서를 자녀가 자기의 정서로 삼아 그에 대해 애도하는 것을 주요한 삶의 과업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 과업이 완성되기까지 한 세대의 트라우마는 세대에 걸쳐 가장 중요한 가족 사건이 되고, 이는 가족의 정체성과 세계관, 행동 규칙을 만들어 낸다.

Weiss와 Weiss(2000: 373)은 이런 현상을 트라우마의 “간접 일반 전송(indirect general transmission)”이라 부른다. 즉, 다음 세대에 전이되는 트라우마는 부모 세대가 경험한 트라우마 자체라기보다 트라우마 사건으로 망가진 부모의 심리적 기능이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결과로 나타나는 발달성 트라우마라는 것이다. 많은 경우 트라우마의 영향 아래 있는 부모는 자기 문제에 짓눌려 어린 자녀들의 아픔과 상처에 적절한 공감과 돌봄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녀들에게 부적절한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성숙을 위해 부모의 존재와 사랑이 필요한데,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위로하고 돌보며, 부모의 결핍된 욕

구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부모가 자녀를 위해 존재하기보다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존재하게 된다. 이런 역기능 속에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보이지 않는 충성심 (invisible loyalty)”으로, 본질적으로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해, 부모의 확대와 방임도 사랑이라고 이해하며 견뎌내고, 더 나아가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대신 채우려 한다(Boszormenyi-Nagy & Spark, 2013: 37-38).²⁾

그러나 자녀 세대의 이 과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이런 역기능적 가족체계에 충성하는 것은 아이들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왜곡된 가족 역동 안에서 참 자기를 버리고 살아남기 위한 필요한 역할들을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Bradshaw, 2006). 따라서 이 불가능한 과업의 성취에 지속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이는 결과적으로 좌절감과 죄책감,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고,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얻는데 실패한 그들은 소외감과 외로움, 유기감, 낮은 자존감에 고통 받으며, 이를 억압하고 부인하고 회피하기 위해 중독, 우울, 사회부적응, 성격 장애 등의 자기 파괴적 반응을 나타낸다(김규보, 2020; Herman, 2015; Weiss & Weiss, 2000).

더욱이 부모의 트라우마로 인한 건강하지 않은 양육은 자녀들의 신경생물학적 질서를 손상시켜 왜곡된 신경계의 질서를 그들의 기본 상태 (default)로 만들어 낸다. 트라우마 환경 가운데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이들의 경우, 편도체는 과도하게 활성화 되는 반면, 전전두엽 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는 상대적으로 비활성화 된다(Ahmed et al, 2012; McLaughlin et al., 2014; Nooner et al., 2013). 과활성화된 편도체는 변

2) “보이지 않는 충성심(invisible loyalty)”이라는 용어는 부모나 조부모의 상실과 결핍에 대해 자녀가 보상하려는 암묵적인 압력을 지칭하는데, 이는 부모 세대들로부터 사랑과 관심, 인정을 받고자 하는 내적 갈망에서 비롯된다(Boszormenyi-Nagy & Spark, 2013: 37-46).

연계와 내분비계에 위험신호를 보내 아드레날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여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대화시킨다(Heller & Lapoerre, 2012). 더불어 혈압 상승, 근육 결림, 가쁜 호흡, 빠른 심장 박동, 신체 떨림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데, 이런 신체 반응들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신호가 되어 지속적으로 불안과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Tomko, 2012). 이 상태에 이르면, 높아진 아드레날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HPA)축에서는 코르티솔을 분비하는데, 코르티솔의 분비는 신체가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자극을 견디게 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코르티솔의 지속적인 분비는 위장장애나, 뇌기능장애, 관계성 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Dickerson & Kemeny, 2004). 가족 트라우마와 같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지속적인 코르티솔의 분비로 초기 스트레스 반응 상태와 달리 코르티솔의 수준은 상당히 감소되어 있는 반면, 아드레날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수치는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King et al., 2001; Yehuda, 2000; Yehuda, McFarlane, & Shalev, 1998). 이는 높은 각성 상태를 만들어서 매사에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수면 장애, 프래시백 등의 상태를 반복하게 한다. 또한 트라우마 내담자들의 편도체는 지속적인 과잉 활성화로 점차 비대해지고, 스트레스 관련 뉴런가지가 발달되어 위험요소를 찾아내는데 극히 민감해지는 “왜곡된 신경지(faulty neuroception)”를 형성한다(Porges, 2004: 19).³⁾ 결과적으로 그들은 일상적인 상황이나 대화도 위협으로 인지하여 불안해하고 긴장한 상태로 언제든지 공격 혹은 도피 반응을 보일 경계태세를 갖추게 된다. 결국 그들은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과잉 반응하고 발작성 분노나 공황 증상을 나타내는 등 적절한 대처 능력을 상실한다.

3) 신경지(neuroception)은 Stephen Porges에 의해 고안된 개념으로 언어나 사고 수준 이전에 위협을 감지하는 뉴론(neuron)의 지각 능력이다.

따라서 만성적인 가족 트라우마 환경 속에서 구성원들은 점차 민감해지고, 갈등은 심화되고 오해가 깊어지며, 건강한 소통과 주고받을 수 없는 상태가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평범한 상태가 되어 버린다. 이는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와의 관계 패턴에 영향을 주어 트라우마 가족 환경을 재생산 하는 또 다른 발판이 된다.

3) 트라우마에 대한 부적절한 가족의 대응

가족 체계적 입장에서 트라우마는 가족 전체의 문제이다. 트라우마에 직면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은 함께 고통을 견디며, 함께 문제의 본질을 탐색하고, 함께 회복과 변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그러나 일부 가족은 트라우마의 문제를 당사자에게만 남겨둠으로써 오히려 이차적 트라우마를 가하기도 한다.

트라우마에 직면하는 가족의 부적절한 대처 중 하나는 은폐이다. 트라우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unspeakable atrocities)”이다 (Lanberg, 2015: 6). 트라우마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때의 정서를 다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은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고통스럽고 두렵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그 일이 외부로 알려질 때 경험하게 될 사회적 낙인은 생존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고취시킨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트라우마 사건을 하루 빨리 기억에서 지워버리려 하고 그 사건을 일상의 저편에 묻어두고자 한다. 이런 경우 트라우마 사건은 가족 안팎에서 절대 언급하지 않아야 할 금기가 된다. 더욱이 만약 트라우마의 가해자가 부모이거나 혹은 유일한 가정의 경제원인 경우, 트라우마 사건은 대부분 숨겨진다. 어떤 경우는 자녀들의 결혼이나 취직 등을 위해 트라우마 사건을 숨기고, 한시적으로나마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 보려고도 한다. 즉, 트라우마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정서, 그 문제를 공론화 했을 때 닥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당사자들 스스로가 트라우마 사건을 가족 안에 묻

어두려운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라우마의 은폐는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공감과 위로,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반치료적 행위이다. 가족 안에서부터 트라우마를 은폐하는 경향은 결국 트라우마에 대한 수동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를 양산한다. Herman(2015: 1-2)은 트라우마 사건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반응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비극을 부인하는 것, 비록 간간히 사회적으로 인지되곤 하지만, 곧 그 사건을 망각해 버리는 것이라 지적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가족들은 도움을 청해보아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 더 이상 트라우마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없어진다. 오히려 더 상처 받고 사회적 낙인과 비난만 남기 때문이다. 트라우마에 대해 이렇게 수동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는 결국 피해자의 고통을 축소시키고 트라우마 사건에 대해 냉담하고 무관심한 문화를 양산한다. 그런 문화는 가해자의 행동을 오히려 수용하고 지지하는 것처럼 해석되어 반복적인 가해활동에 대한 문화적 규제를 느슨하게 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위험이 있다 (Staub, 2003: 305-309).

또한 인과응보적 사고도 트라우마에 대한 가족의 왜곡된 대처이다. “인과응보적 사고(Just-world thinking)”는 피해자가 트라우마 사건을 당할 만한 잘못과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는 인지적 왜곡이다(Staub, 2003: 306). 트라우마 사건에 대해 가족원들이 때때로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경우가 있다. 어떤 가정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청소년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손찌검을 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오히려 아들에게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훈육한다. 또 어떤 가정은 자녀가 집단 따돌림의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자녀에게 그럴만한 행동과 태도를 보인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심지어 학교에서 성폭행의 피해를 입은 한 내담자 가정은 가해자를 비난하기도 했지

만, 동시에 피해 자녀가 정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에 대해 심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은 트라우마 사건에 대한 원인과 책임이 분명 가해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향해야 할 비난의 화살이 오히려 피해자에게로 향하는 잔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많은 이들이 본인의 가정은 결코 그런 왜곡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가해자를 비난하고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보편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지극히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한다(Lerner & Miller, 1978). 안타깝게도 이런 태도는 오늘날 가족 현장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트라우마 이후의 트라우마이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영적 승리주의(spiritual triumphalism)이다. 영적 승리주의는 고통에 영적인 의미를 덧입힘으로써 고통의 크기를 축소하고 오히려 고통을 유익한 것으로 환원시키는 태도이다(Nydam, 2010: 339). 이런 태도는 종종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나타나곤 한다. 예를 들면, “고난이 유익이니 감사하라. 더 심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 난 더 심한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야. 고난 후에 정금같이 나온단잖아.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시려는 거야. 기도를 더 하라는 거야”라는 식의 모습들이다.

물론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나 트라우마 후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언급이 틀린 것은 아니다. 실제로 트라우마는 성장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트라우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고, 트라우마를 통해서 사람은 그 이전보다 더 좋은 태도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다. 최근 트라우마 분야에서는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외상 후 성장이란 트라우마를 경험한 후의 삶이 과거의 삶보다 더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실제로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들 중에 약 절반 정도는 트라우마 이전보다 더 성

속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한다.⁴⁾ 이는 트라우마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영적 승리주의적 태도는 비극적인 현실 너머의 희망적인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당사자가 트라우마 사건을 잘 극복하게 하려는 선한 의도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트라우마의 현실 속에서 위와 같은 말들은 좋은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이해와 사례가 결코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통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 가정폭력의 피해로 팔, 다리가 부러지고 뱃속의 태아까지 잃게 된 한 여성은 이혼 후 십 수 년이 지나 재혼해서 가정을 다시 이루고, 남편과 함께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잘 이끌어 가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과정 가운데 들었던 말들을 되뇌며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내 마음은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 찼어요. 조금만 더 기도해보라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남편 구원을 위해 십자가 저야 한다고 수없이 들었어요. 이혼 하고 나서는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더 참고 견디면 복이 올 것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문은 점점 단단히 닫히기만 했고 죄책감과 수치스러움은 깊어져갔어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무섭고 싫어졌어요. 결국 이사를 갔고 교회도 옮겼어요. 새 교회에서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과거에 대해 말 할 수 없었어요. 또 상처받을 게 뻔하니까요.⁵⁾

4) 나머지 절반은 부정적 인생관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며, 그 중 10% 가량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Disorder)로 정도는 정신적으로나 관계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간다.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는 트라우마 사건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사고 전환, 새로운 관점이 트라우마의 회복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시사한다(Joseph, 2011).

5) 이 축어록은 2018년 15회기 동안 진행된 트라우마 상담에서 내담자의 동의 후 발췌한 것이다.

트라우마 사건 이후 성취한 긍정적인 삶의 변화가 그녀가 경험했던 고통의 시간을 상쇄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트라우마 후 성장의 가능성은 결코 트라우마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영적 환원주의는 트라우마의 고통과 슬픔, 아픔의 실체가 성장의 가능성으로 용납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 더 나아가 트라우마를 어렵게 견디고 있는 자들에게 너무 쉽게 제3자가,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영적 의미를 던져 주는 것은 선한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그들에게 “왜 더 성숙하지 못하는가, 왜 영적 의미를 찾지 못하는가, 왜 현실에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가”라는 정죄 혹은 강요로 들릴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숨기는데 익숙해진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 괴로움을 영적인 의미로 덮어버린다. 고통 가운데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스스로 신앙의 미성숙이라 치부하며 자책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분노하고, 우울감에 빠짐만 거짓 웃음과 피상적인 대화 뒤에 숨기며 억압된 정서 가운데 괴로움을 호소한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위로의 말은 그 의도와 말투가 얼마나 선한지와 상관없이 이미 트라우마로 찢겨진 마음을 또 한 번 도려내는 보이지 않는 칼날과도 같다. 그리고 그 대상이 가족일 때 그들은 가족으로부터도 상처받고 외롭게 홀로 트라우마와 싸워나갈 수밖에 없다.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디기 힘든 아픔이다.

2. 그리스도 닮음을 통한 트라우마 저항적 가족 질서의 형성

지금까지 트라우마 환경이 되는 가족 역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는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는 전혀 다른 죄에 물든 가족의 모습

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성품과 삶을 허락하신다.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가운데 성경이 계시하는 인류의 이상적인 삶의 양식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감(Christiformity)이다(갈 4:19; 빌 2:5; 엡4:13).⁶⁾ 가족의 질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가족의 질서가 그리스도의 뜻과 성품을 담아낼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트라우마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양산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리스도 닮음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족 질서를 세우는 방편으로써 트라우마 저항적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 지향적인 가정을 형성하는 성경적 기준이다.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 직분(*munus triplex*)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역을 이루신다(문병호, 2016: 791-815; Calvin, 1988; 2.15.1-6; Frame, 2013: 914-29).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시며, 인류의 지식과 지혜, 삶의 기준,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마7:21-27; 요1:14; 6:68; 7:16-17; 12:48; 14:6; 골 3:10; 3:16; 요일 1:4).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스스로 흠 없고 거룩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간구하신다(요 1:29; 17:9; 롬 8:34; 히 7:25; 9:12-15; 요일 2:2).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으로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의 백성과 나라를 지키시고 다스리신다(마 28:18; 고전 15:24-28; 엡

6) 그리스도 닮음(Christiformity)이란 그리스도의 생애를 닮아가려는 인간의 의도적인 노력이라기보다 그리스도가 그분의 형상을 신자들 안에 형성(formation)하시는 것, 곧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품, 그분의 뜻이 드러나는 것(conformity)이다(Kim, 2016; Gorman, 2010).

1:20-22; 골1:16).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구속 사적 성취이자 구원론적 적용에 부합하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충만하게 담아내는 실제적 사역이다(문병호, 2016).

택함 받은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실천하도록 부름 받았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성도 안에 거하시고 성도가 그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허락하신다(요 14:20; 고후 5:19-20; 벧전 2:9).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구원 사역, 곧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역사 가운데 실체화하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작은 하나님 나라인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각 가정 안에서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실천할 때, 트라우마로 얼룩진 가족 역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로 회복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한 영역이 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성경적 질서가 트라우마 가족 역동을 대체하는 트라우마 저항적 가족 질서(trauma-resilient family system)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선지자적 가족 질서: 말씀 중심의 거룩 축진 환경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이다(마 28:20; 행 1:8; 고후 5:19-20). 가정 안에서의 선지자적 역할은 일차적으로 부모에서 주신 거룩한 책임이며, 이차적으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말씀 안에서 거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할 평생의 사명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과 마음을 계시하시며, 말씀을 통해 인류가 살아갈 원리와 기준을 보여주신다(창 1:1-31; 시18:30; 잠 8: 32; 사 40:28; 50:3).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심령을 소생시키고, 악과 거짓, 교만으로부터 떠나게 하며, 행실을 깨끗케 하고, 길을 안내하며, 영혼의 놀림에서 일으키고, 고난 중에 위로와 도움이 되며, 영원한 의를 보게 하고, 감사와 즐거움이 된다(시119:1-176).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족 질서의 중심이 된다면, 가족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지배하는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가족 규칙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이다. 모든 가족에는 보이지 않는 가족 규칙이 있다. 기상 시간, 정리, 식사 예절, 서로를 향한 인사, 애정 표현의 방법, 귀가 시간, 취침 전 대화 등 가정에는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하는 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대부분 부모의 이전 세대에서부터 비롯되며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아도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가족 문화이다. 그러나 가족 규칙 중에는 가족원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경우도 있고, 역기능적인 감정과 태도를 숨기고 있는 경우도 많다(김영애,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규칙은 각 가정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규칙에서 벗어나면 서로 불편해하고 화를 내기도 한다. 더욱이 만약 그 가족 규칙에 학대나 방임 등의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트라우마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비의식적으로 형성되는 왜곡된 가족 규칙은 의식적으로 교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은 의식하지 않았던 가족 규칙을 하나님의 의도와 성품에 빗대어 진단하고, 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가족의 병리적인 상태를 깨닫는 것은 새로운 가족 질서 형성을 위한 첫걸음이다. 어떤 가족 규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될 때, 가족원들은 각자가 익숙하기 때문에 옳다고 착각했던 왜곡된 규칙을

인지하게 되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새로운 가족 질서를 갈망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하나님 말씀을 가족원들과 함께 알고, 함께 나누고, 함께 실천하는 가족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가족의 문제를 알고, 변화를 원하는 것만으로 실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과거의 문화를 버리는 실천과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대와 방임의 습관, 역기능적 가족 관계는 병리적 가족 항상성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죄 된 습관을 대체하는 거룩한 새 습관이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연습되어야 한다. 물론 거룩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아 은혜로 점차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지만, 이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에 이끌린바 되어 자기 몸을 치면서까지 연단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과정이다(고전 9:27; 히 12:5-11). 따라서 삶의 목적과 방향, 방법에 대한 경건의 지식과 거룩한 행동, 순전한 관계를 성경을 통해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선지자적 가족 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함께 배우고, 말씀에 대한 생각과 적용을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가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서로의 삶 가운데 성취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가족원이 비록 부족하지만 함께 순종하려 노력하고 서로의 노력을 지지할 수 있다면, 각 가족원들은 경건한 생각과 행동으로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점차 변화되어 갈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가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함께 이해하고 함께 고난 중에 인내하며 은혜 중에 감사하는 가족 문화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의 살아있는 교재(a lived text of the Bible)이다. 따라서 가족원이 하나님 말씀의 생생한 교재로서 함께 그리스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서로에게 흘려보낼 때, 말씀 중심의 가족 질서는 학대와 방임, 역기능이 지배하는 가족 역동을 변화시키고, 거룩을 촉진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갈 것이다.

2) 제사장적 가족 질서: 죄 사함과 간구함의 예배

그리스도인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속죄 사역에 참여한다.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곧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한 희생 제사와 그들을 위한 간구이다(문병호, 2016: 799-80; Brakel, 2019: 948; Frame, 2017: 920-24).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히 2:17; 4:14-15; 10:10-14; 롬 3:25; 엡 5:2). 또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택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영원토록 간구하신다(롬 8:34; 히 2:17-18; 7:25; 요일 2:1). 그렇다면, 그리스도 닮음을 실천하는 제사장적 가족 질서는 죄 사함과 기도의 주제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첫째, 속죄 제사의 측면에서 온 가족은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 함께 나가는 질서를 세워야 한다. 죄인 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따라서 제사장적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각 가족원들은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를 의지함 없이는 결코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죄인 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고 자기 죄를 혐오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것이다. 또한 그런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스스로 완전한 대속물이 되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를 죽이고 서로가 또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Owen, 2011). 죄인 된 인간은 오직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죄가 지배하는 삶을 떠나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인지하고 혐오하고 죽이는 과정은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 그리스도는 신자가 영적으로 부정확한 상태에 빠지고 죽음의 순간에 있어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신실한 중보자이시다(Brakel, 2019: 973). 신실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는 성도가 “날마다 범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그 보좌 앞에서 계속 중보하신다(Brakel, 2019: 953). 그분은 “자녀들의 슬프고도 최악된 불행을 살피고 이를 마음에 간직하며, 더 나아가 그들을 기꺼이 돕고자 하시는 그분의 영원하고도 무한한 사랑에서 나오는 긍휼의 마음”이 있으시다(Brakel, 2019: 975). 그 긍휼함으로 그리스도는 성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 죽음에 대한 비통함, 저주와 정죄, 곧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큰 고난과 비참함을 직접 경험하셨다(Brakel, 2019: 977). 그분이 “중보하심으로써 구원이 적용”되고 “사람들을 그 구원에 실제로 참여”한다(Brakel, 2019: 961). 즉, 그분은 자녀들의 형편과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며 그 위에 사랑과 긍휼을 덮으시고 그들을 돕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도는 비참한 트라우마의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께 위로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둘째, 온 가족은 어려움과 아픔, 고통 가운데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함께 애통하고 함께 그분의 일하심을 구하며 함께 서로의 회복과 성장, 변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죄 사함과 기도의 두 주제를 효과적으로 담아내는 가족 질서는 정기

적인 가정 예배이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제사는 단번에 이루신 완전한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오늘날 신자들은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히 10:18).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서 예배를 드린다(벧전 2:5). Richard Baxter(2019: 55-56)에 의하면, 가족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이다. 부모와 자녀가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각 가족원은 숨겨진 죄를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가족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속죄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에서 떠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을 얻는다. 또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중에 가족으로부터 위로 받고, 가족과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얻는다.

이런 가족 질서는 트라우마의 은폐나 인과응보적 사고, 영적 환원주의 같은 왜곡된 가족 반응을 변화시키는 성경적 대안이 된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가족원은 하나님과 가족 앞에 트라우마 문제를 드러내고, 드러난 상처와 죄에 대해 함께 그리스도 앞에서 애통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그분의 일하심을 간구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가족이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위기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가족원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가족 질서로 체득하게 된다. 이는 트라우마가 세대 간 전이되는 과정을 끊어내는 동시에 고난 중 예배드림의 질서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거룩한 제사장적 가족 질서이다.

3) 왕적 가족 질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적 헌신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 은총을 나라의 모든 영역에 드러내는 직분이다(문병호,

2016). 하나님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 삼으시고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신다(계 5:10; 벰전 2:9). 가정도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나야 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각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은 왕의 마음과 왕의 통치를 통해 트라우마로 깨어진 가족을 회복하고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

왕적 가족 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실천은 그리스도께 가정의 왕권을 드리는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되어 모든 것을 자기의 소견대로 하기 원한다(삿 21:25). 특히 많은 이들이 가족, 곧 남편이나 아내, 자녀, 심지어 부모까지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자기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마음을 Glasser(2017: 22)는 “외부통제심리”라 지칭하며,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거나 통제해야만 한다고 믿는 왜곡된 신념이 수많은 갈등과 불행의 기저에 있다고 지적한다.

외부통제심리가 작동되는 관계 질서 이면에는 힘의 논리가 숨겨져 있다. 외부통제가 성공하면, 통제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자기만족이라는 강화물은 더 강한 통제의 힘을 추구하게 되고, 더 큰 힘은 더 큰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방편이 되어 일종의 착취적 관계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 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하지 않았을 때 비난하고 위협하고 처벌하고 심지어 학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파괴적인 심리적 오류를 낳는다(Glasser, 2017). 그 본질은 결국 타인이 자기 통제에 따르지 않아 자기만족을 얻지 못해 분노하는 힘의 논리이다.

트라우마 가족 역동의 기저에는 외부통제심리가 숨겨져 있다. 즉, 자기가 가족 질서를 지배하는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학대와 방임, 역기능적 질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족이 통제 되지 않을 때 상한 마음을 죄 된 모습으로 표출하는 방식들이다. 또한 트라우마 사건을 은폐

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고통의 실재를 영적으로 억압하는 등의 병리적 인 가족 대처는 외부통제를 통해 트라우마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과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는 시도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 착취적 통제 체계 아래 굴복하는 이들은 만약 그 질서에 저항할 경우 그나마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기 통제를 상실하고 더욱 고통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통제 아래 있는 일종의 안정감에 안주하는 동시에 언젠가 자신도 그 힘을 얻어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희망을 품고 지속적으로 그 체계 속에서 살아 간다(Glasser, 2017: 21-23). 이는 힘의 논리를 숨기고 있는 병리적 통제 심리가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이되는 동력이 된다.

이런 트라우마 가족 역동 가운데 왕적 가족 질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정의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왕적 가족 질서는 스스로 가족의 왕이 되려고 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를 왕으로 따르지 않고 모든 가족원이 오직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 그분의 통치 아래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다. 이런 가족 질서는 죄인 된 인간의 욕심과 만족을 따르는 습관을 줄여가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삶의 태도는 점차 양산해 가는 새로운 가족 문화 형성할 것이다. 그 가운데 가족원은 스스로 왕 노릇 하려 했던 통제 심리를 버리고 서로를 그리스도 대하듯 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욕심을 위한 통제와 억압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 거할 때 허락되는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요 8:31-32).

둘째, 왕적 가족 질서는 지금 여기에 각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가족원이 함께 헌신하는 것이다. 가정은 교회, 국가 등의 거시적 사회구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김규보, 2019; Bavinck, 2011). Bavinck(2012: 134)에 의하면, 그리스도인 가정은 “사회의 도덕적 안녕(the moral well-being of society)”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와 원리를 경험적으로 배우고 사회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기능을 한다고 한

다. 다시 말하면, 가정 안에서 구성원들은 자유, 독립, 권위, 순종, 연합, 평등 등의 성경적 윤리를 체득하고, 이를 기초로 건강한 사회를 위한 개혁의 기초와 방법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각 가정의 구성원은 그들이 속한 다양한 삶의 영역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공 사회로 흘러보내는 통로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 백성으로서 가족 모두가 할례, 제사, 절기 등을 함께 준비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방법과 의미를 세대를 넘어 가르쳤다(이희성, 2013). 그 사명은 오늘날 새 언약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확장되었다(마 28:19-20). 따라서 왕적 가족 질서는 단순히 가정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참 왕,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가족의 구성원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인류의 창조 때부터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정에서부터 학교, 직장, 일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시다(계 17:14). 그분의 주권이 각 가정 안에서 회복되고, 그 뜻과 마음이 각 가정을 통해 그들의 삶의 터전, 곧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 이는 트라우마를 촉진하는 가정환경과 왜곡된 관계 역동을 끊어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함께 이끌리는 대안적인 가족 질서가 만들어 질 것이다. 이런 왕적 가족 질서는 더 나아가 Smith(2016: 125)가 지적했던 “작은 하나님 나라”를 가정 안에 세움으로써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맛보게 하고, 그로 인해 그 나라를 더욱 갈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함에 더욱 헌신하는 나선형적 왕적 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III. 닫는 글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왜곡된 가족 역동과 그에 대한 성경적 대안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적 가족 질서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대와 방임, 가족 역기능은 가족 트라우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가족 트라우마는 세대 간 전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은폐, 비난, 영적 환원주의 등 트라우마 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가족의 대처는 이차 트라우마를 낳을 위험이 있다. 이렇게 왜곡된 가족의 현실 가운데 기독교 신학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중심으로 가족 질서를 재구성함으로써 트라우마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형성하는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선지자적 가족 질서는 말씀 중심의 환경을 형성함으로써 트라우마 양육 환경을 거룩 축진 환경으로 변화시킨다. 제사장적 가족 질서는 죄 사함과 간구함의 예배를 통해 트라우마 문제에 온 가족이 함께 직면하고, 세대 간 전이 되는 과정을 끊어내게 한다. 왕적 가족 질서는 그리스도께 가정의 왕권을 이양함으로써 트라우마가 지배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비전에 이끌리는 가족 공동체를 세운다. 결론적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적 가족 질서를 형성함은 트라우마 저항적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 지향적인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그리스도 닮음의 가족 체계적 실천이다.

이 연구는 트라우마로 얼룩진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기 위한 질서와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경적 트라우마 연구와 기독교 가정사역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특히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중심으로 성경적 가족 질서의 구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큰 가치가 있다. 그러나 더욱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후속 연구와 교회 중심의 가정사역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가 가족 트라우마 문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의 후속 연구와 다양한 실천을 촉구하는 부르심의 한 방

편이 되기를 소망한다. 더 나아가 그런 연구와 실천들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김규보 (2017). 트라우마에 대한 현대 심리학적 접근의 평가와 기독교 병리학 적 제안. **성경과 신학**, 81, 171-205.
- 김규보 (2019). 헤르만 바빙크(H. Bavinck)의 언약 이해와 가정사역: 성경적 가족생활교육을 위한 언약의 실천신학적 함의. **복음과 상담**, 27(1), 81-120.
- 김규보 (2020). 자기 형성과 트라우마, 은혜의 치료적 기능. **복음과 상담**, 28(1), 5-50.
- 김보라, 이덕희, 이도영, 이동훈 (2018). DSM 진단기준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트라우마 경험과 PTSD 증상 및 외상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6), 225-249.
- 김영애 (2015). **통합적 사티어 모델: 이론과 실제**.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 김지은, 이민규 (2015). 청소년의 외상경험이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가지각 긍정성 수준에 따른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129-146.
- 도기숙 (2011). 가족, 트라우마인가 트라우마인가? 슈티프터의 “숲속의 오솔길 Der Waldsteig”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54, 105-24.
- 문병호 (2016). **기독교론: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 안현의, 박철욱, 주혜선 (2012). 외상관련 정서의 확장: 수치심, 죄책감, 분노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839-854.
- 유재학, 서민재, 박지선 (2013). 아동기 외상 경험과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 자신과 부모 평가 간의 관계: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비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4(1), 36-43.
- 이동훈, 김지은, 이덕희, 강민수 (2018). DSM 진단기준과 대인 및 비대인 외상 사건에 따른 성인의 PTSD 증상, 심리적 디스트레스, 정서조절곤란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741-773.
- 이희성 (2013). 언약의 영속성 관점에서 본 구약의 자녀교육. **개혁논총**, 28, 43-74.
- 설은주 (1997). **가정사역론**. 서울: 예영.
- 최광현. (2011). 가족희생양 역할을 수행한 청소년 내담자에 대한 트라우마 가족치료 사례연구. **청소년시설환경**, 9(4), 13-21.

- 최광현 (2012). *가족의 두 얼굴*. 서울: 부키.
- Allen, B., & Lauterbach, D. (2007).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Adult Survivors of Childhoo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0*(4), 587–595.
- Allen, G. J. (2010). *트라우마의 치유*(권정혜, 김정법, 조용례 역,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서울: 학지사. (원전 2008 출판).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권준수 외 역,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서울: 학지사. (원전 2013 출판).
- Ahmed, F., Spottiswoode, B. S., Carey, P. D., Stein, D. J., & Seedat, S. (2012). Relationship between Neurocognition and Regional Brain Volumes in Traumatized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Neuropsychobiology 66*(3), 174–84.
- Barocas, H. A., & Barocas, C. B. (1979). Wounds of the Fathers: The Next Generation of Holocaust Victims.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oanalysis 6*(3), 331–40.
- Baxter, R. (2019). *기독교 생활 지침 3*(박흥규 역, A Christian Directory).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1996 출판).
- Bavinck, H. (2011). *개혁교의학 3*(박태현 역, *Gereformeerde dogmatiek*).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1985 출판).
- Bavinck, H. (2012). *The Christian family*, Nelson D. Kloosterman (trans). Grand Rapids MI, Christian Library Press.
- Bodkin, J. A., Pope, H. G., Detke, M. J., & Hudson, I. (2007). Is PTSD Caused by Traumatic Stres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1*(2), 176–182.
- Bowen, Murray. (1994).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Lanhan, MD: Jason Aronson.
- Boszormenyi-Nagy, I. V., & B. R. Krasner. (2014). *Between Give and Take: A Clinical Guide to Contextual Therapy*. New York, NY: Routledge.
- Boszormenyi-Nagy, I. V., & G. M. Spark. (2013). *In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New York, NY:

Routledge.

- Bradshaw, J. (2006). 가족(오제은 역, *The Family*). 서울: 학지사. (원전 1996 출판).
- Brakel, Wihelmus ?. (2019).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1: 신론, 인간론, 기독교론(김효남, 서명수, 장호준 역, *The Christian Reasonable Service*). 서울: 지평서원. (원전 1992-1995 출판).
- Briere, J. N., & C. Scott. (2020). 트라우마 상담 및 심리치료의 원칙(이동훈, 김중희, 이정은, 김진주, 강현숙 역, *Principles of Trauma Therapy*). (원전 2013 출판).
- Calvin, J. (1988). 기독교 강요(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역,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전 1559 출판).
- Carlson, B. E. (1990). Adolescent observers of marit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5, 285-299.
- Cerezo, M. A. (1997). Paent-Child Conflict, Coercive Family Interaction, and Physical Child Abuse. In C. A. Klein (ed.),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n Family Violence*(pp. 9-20). New York: Routledge.
- Charf, D. (2020).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서유리 역, *Auch alte Wunden Konnnen heilen*). 서울: 동양북스. (원전 2018 출판).
- Courtois, C. A. (2008). Complex Trauma, Complex Reactions: Assessment and Treatment. *Psychological Trauma: Theory, Practice, Policy*, S(1), 86-100.
- Dickerson, S. S., & Kemeny, M. E. (2004). Acute Stressors and Cortisol Responses: A Theoretical Integration and Synthesis of Laboratory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30(3), 355-91.
- Edleson, J. L. (1999). Children's witnessing of adult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8), 839-870.
- Epstein, H. *Children of the Holocaust: Conversations with Sons and Daughters of Survivors*. London: Penguin Books.
- Famularo, R., Kinscherff R., & Fenton T. (1992). Psychiatric Diagnoses of Maltreated Children: Preliminary Finding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1(5), 863-867.
- Firestone, R. W. (1987). *The Fantasy Bond: Structure of Psychological Defences*. Santa Babara, CA: The Glendon Association.

- Frame, John M. (2015). 기독교 윤리학: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리(이경직, 김진운, 박성관, 박예일, 이진영 역, *The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원전 2008 출판).
- Gold, S. D., B. P. Marx, J. M. Soler-Baillo, & M. Sloan. (2005). Is Life Stress More Traumatic Than Traumatic Stres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9(6), 87-698.
- Gorman, M. J. (2010).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박규태 역, *Cruciformity: Paul's Narrative Spirituality of the Cross*) 서울: 새물결플러스. (원전 2001 출판).
- Glasser, W. (2017). 선택이론(김인자, 우애령 역, *Choice Theory: A New Psychology of Personal Freedom*).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원전 1998 출판).
- Janzen, D. (2013). *The Violent Gift: Trauma's Subversion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s Narrative*. London: T&T Clark.
- Joseph, S. (2011). *What Doesn't Kill Us: The New Psychology of Posttraumatic Growth*. New York, NY: Basic Books.
- Juni, S. (2016). Second-Generation Holocaust Survivors: Psychological, Theological, and Moral Challenges. *Journal of Trauma & Dissociation* 17(1), 97-111.
- Heller, L. & Lapierre, A. (2012). *Healing Developmental Trauma: How Early Trauma Affects Regulation, Self-Image, and the Capacity for Relationship*.
- Hirsch, M. (2002). *Marked by Memory: Feminist Reflections on Trauma and Transmission in Extremities: Trauma, Testimony, Community*. (Eds.) N. K. Miller and J. Tougan. Chicago: Illinois University Press.
- Herman, Judith L. (2015).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 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New York: Basic Books.
- Kim, J., Cicchetti, D., Rogosch, F.A., & Manly, J.T. (2009). Child maltreatment and trajectories of personality and behavioral functioning: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disorde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21, 889-912.
- Kim, K. B. (2016) *Embracing Trauma in Theodrama: Embodying Christiformity*. Ph.D diss. Louisville, KY: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 Kogan, I. (1995). *The Cry of Mute Children: A Psychoanalytic Perspective of the Second Generation of the Holocaust*. London: Free Association Books.
- Kolk, van der B. (2016). 몸은 기억한다(제효영 역, *The Body Keeps the Score: Brain, Mind, and Body in the Healing of Trauma*). 서울: 을유문화사. (원전 2015 출판).
- Kostenberger, Andreas J. & David W. Jones. (2020). 성경의 눈으로 본 결혼과 가정(윤종석 역, *God, Marriage, and Family*). 서울: 아버서원. (원전 2004 출판).
- Kubany, E. S., Leisen, M.B., Kaplan, A.S., Watson, S.B., Haynes, S.N., Owens, J.A., & Burns, K. (2000).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a Brief Broad-spectrum Measure of Trauma Exposure: the Traumatic Life Events Questionnaire. *Psychological Assessment, 12*(2), 210–24.
- Lanberg, D. (2015). *Suffering and the Heart of God: How Trauma Destroys and Christ Restores*. Greensboro, NC: New Groth Press.
- Lerner, M. J., & Miller, D. T. (1978). Just World Research and the Attribution Process: Looking Back and Ahead. *Psychological Bulletin 85*, 1030–1051.
- McLaughlin, K. A., Busso, D. S., Duys, A., Grief, J. Alves, S. Way, M., & Sheridan, M. A. (2014). Amygdala Response to Negative Stimuli Predicts PTSD Symptom Onset Following a Terrorist Attack. *Depression & Anxiety 31*(10), 834–42.
- Nydam, R. J. (2010). Facing Cancer: The Spiritual Dangers of a Docetic Engagement of Acute Leukemia. *Calvin Theological Journal, 45*(2), 335–44.
- Nooner, K.B., Mennes, M., Brown, S., Castellanos, F.X., Leventhal, B., Milham, M.P., & Colcombe, S.J. (2013). Relationship of Trauma Symptoms to Amygdala-Based Functional Brain Changes in Adolescent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6*(6), 784–87.
- Owen, J. (2011). 죄와 은혜의 지배(이한상 역, *On the Dominion of Sin and Grace*).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1739 출판).

- Piper, John. (2013). *결혼신학*(이은이 역, *This Momentary Marriage*).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2009 출판).
- Pillari, V. (2008). *가족희생양이 된 자녀의 심리와 상담*(임춘희, 김향은 역, *Scapegoating in Families: Intergenerational Patterns of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서울: 학지사. (원전 1991 출판).
- Porge, S. W. (2004). Neuroception: A Subconscious System for Detecting Threats and Safety. *Zero to Three*, 24(5), 19–24.
- Nichols, M. P., & R. C. Schwartz. (2004).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Boston, MA: Pearson.
- Robinson, J. S., & C. Larson. (2010). Are traumatic events necessary to elicit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2(2), 71–76.
- Satir, Virginia. (2006). *Satir Model: Family Therapy and Beyond*. Mountain View, CA: Science & Behavior.
- Schore, A. N. (1994). *Affect Regulation and the Origin of the Self*.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Schwartz, S., B. P. Dohrenwend., & I. Levav. (1994). Nongenetic Familial Transmission of Psychiatric Disorders? Evidence from Children of Holocaust Survivor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4), 385–402
- Seigel, D. J. (1999). *The Developing Mind: Toward a Neurobiology of Interpersonal Experience*. NY: The Guilford Press.
- Smith, James K. A. (2016). *You are What You Love: The Spiritual Power of Habit*.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 Staub, E. (2003). *The Psychology of Good and Evil: Why Children, Adults, and Groups Help and Harm Ot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wagman, B. (2002). *Responding to Domestic Violence: A Resource for Church Leaders*. Grand Rapids, MI: Faith Alive.
- Tomko, J. R. (2012). Neurobiological Effects of Trauma and Psychopharmacology, in *Trauma Counseling: Theories and Interventions*. (ed.). Lisa L. Levers.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12.
- Volkan, Vamik. (1997). *Blood Lines: From Ethnic Pride to Ethnic Terrorism*.

NY: Farrar Straus & Giroux.

- Whitaker, Carl A. & William M. Bumberry. (2005). *Dancing with the Family: A Symbolic Experiential Approach*. Levittown, PA: Brunner/Mazel.
- Weiss, M., & S. Weiss. (2000). Second Generation to Holocaust Survivors: Enhanced Differentiation of Trauma Transmi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54(3), 372-85.
- Wolak J., & Finkelhor, D. (1998). Children exposed to partner violence. In Jasinski, J.L. & Williams, L.M. (Eds.) *Partner Violence: A Comprehensive Review of 20 Years of Research*(pp. 73-112).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Yehuda, R. (2000). Biolog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1, 14-21.
- Yehuda, R., McFarlane, A. C., & Shalev, A. Y. (1998). Predicting the Develop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rom the Acute Response to a Traumatic Event. *Biological Psychiatry Biological Psychiatry* 44(12), 1305-13.

【 Abstract 】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Triple Office of Christ to Traumatic Family Systems

Kim, Kyu Bo

Chongshin University

Family system can be traumatic. Domestic abuse, neglect, and dysfunctional systems are main factors causing trauma symptoms in family members, and such traumas are prone to be passed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Inadequate family copings to trauma, such as concealment, just-world thinking, spiritual triumphalism, are also significant factors that trigger secondary traumatization to the sufferers. In this regard, this paper argues that the triple office (minus triplex) of Christ has practical implications for creating Christlike family order, which is to de-form trauma-prone family environments, to re-form trauma-resilient family system, and to desire the Kingdom of God. In the prophetic family order, members are to change its traumatic culture to the holy, anchored on the Word of God. In the priestly family order, members can participate in a confessional and prayerful worship, reducing the destructive impacts of trauma to the next generations and confronting the nature of trauma, without hiding or defending it. In the royal family order, members hand over their right to God's sovereignty and create a new way of life driven by God's vision for his kingdom, serving the public society and the church.

Key words: trauma, family system, the triple office of Christ, Christiformity, Christian counseling